

# 행자교육원 '문턱의 힘' 대단하네

### 조계종 40대 41% · 대졸 학력자 42% ... 출가 제한연령 50세 조정 영향 태고종 입교자격 · 소양시험 강화 ... 신청자 43% 탈락시켜 '자정 의지'

조계종 직지사 행자교육원 입교식에서 40대 이상 출가자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태고종도 인교회합자 중 절반정도를 서류심사에서 엄격하게 걸러내는 등 예전과 다른 행자교육원의 신속속도가 펼쳐져 주목되고 있다.

또한 두 종단 모두 인교회합자의 고학력 현상이 지난해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끈다.

출가연령이 40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상향조정된 후 이 같은 규정이 처음 적용된 조계종 제31기 행자교육원, 8월 11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개원한 행자교육원에는 예년에 비해 중년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제31기 행자교육원에 남행자 57명, 여행자 39명 등 40세 이상 출가자 96명(40대 81명, 50대 15명)이 지원했다. 이는 총 232명(남행자 149명, 여행자 83명) 중 41.4%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체 입교생 수도 증가했다. 출가 연령이 40세 이하였을 때는 지원자가 150명 정도였지만, 50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자 80여명으로 늘어났다.

'늦깎이 발심자' 뿐만 아니라 '고학력자'도 대거 지원했다. 제31기 행자교육원 지원자 중 전문대 졸업자가 17명, 대학교 졸업자 76명, 대학원 졸업자 5명 등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가 98명으로 전체 42%를 차지했다.

고령 · 고학력 출가자는 시대적 추세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조계종 교육부장 법장 스님은 "행자교육기간 중 이들의 교육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성실한 대중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이후에도 부적격자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5일부터 실시하는 제30기 합동특도 수계산림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수계산림인 점과 최근 종단 내에서 일고 있는 자정 움직임과 관련 입교에 앞서 치뤄진 행자 소양시험을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했다.

8월 10일 소양시험 및 면접, 신체검사가 진행된 신촌 봉원사 시험장 내에는 시종 긴장감이 흘렀다. 시험 전 행자복과 흰고무신 등 기본적인 복장을 갖추지 않은 행자는 입실조차 금지시켰다. 또한 면접 때도 수험생들이 불교기초교리를 잘 숙지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테스트했다.

또한 신체검사에서도 난치병 환자나 전염성 있는 질병 보유자는 엄정히 걸러냈으며, 문신이 있는 등 스님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를 철저히 선별해 불합격 처리시켰다. 아울러 금치산자나 파렴치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 배우자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는 여행자 등도 시험 자격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수계 신청에는 남자 248명, 여자 94명 등 모두 342명이 신청했지만, 서류전형 결과 57%인 195명(남자 144명, 여자 51명)에 겨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중 180명(남자 131명, 여자 49명)이 합격했다.

태고종 교무국장 법륜 스님은 "서류심사에서 자격기준을 강화해 절반정도의 응시자를 탈락시킨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수준높은 스님을 배출하는 것만이 종단 자정과 개혁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는 믿음으로 수계산림 중이라도 교육기준에 미달되는 행자는 과감히 탈락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태고종은 행자 소양시험 응시자의 학력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졸 이상이 48명(25%), 고졸 92명(47%), 중졸 39명(20%), 초·중졸 16명(8%) 등으로 나타났다



8월 16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전산원에서 실시된 제9회 전산교육 실습에서 조계종 스님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참여하고 있다.

## "디카로 찍은 사진 CD로 구워요" 조계종 스님 대상 전산교육 실시

조계종 교육원은 제9회 전산교육을 8월 16~19일 4일간 동국대(서울·경주)에서 실시했다.

교육기간동안 초급반 스님들은 컴퓨터 기초, 한글 기초, 인터넷 기초 등을, 중급반 스님들은 한글 활용, 오피스 활용, 인터넷 활용, 홈페이지 활용 등을 배웠다. 이밖에 포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시디 굿기, MP3 파일 관리, 디지털카메라 편집 등도 익혔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중무행정의 능력을 높이고 스님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온 조계종 전산교육은 동국대 총 70명(서울 26명, 경주 44명)의 스님이 이수했다.

**고운사 주지 직대에 호성스님**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 주지 직무대행으로 현 고운사 선원장 호성스님(사잔)이 8월 14일 임명됐다.

호성 스님의 임기는 전임 혜승 스님의 임기가 끝나는 8월 17일부터 3개월간이다.

호성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87년 9월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주지했다.

1986년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15안거 성만했다.

조용수 기자

## 불입종 '중정 추대' 놓고 내용

대한불교 불입종이 자기 중정 선임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다.

이번 내용의 발단은 지난 7월 19일 충북 보은 화광사에서 열린 '불입종 종조 태허 흥선 대법사 27주기 대제' 행사장에서 2대 중정 경조 스님이 "간강이 안종아 후식 급작스럽게 큰일이 닥칠지 몰라 미리 생각하게 됐다"며 "중정 유고(有故)시에는 차기인 3대 중정으로 중정 사서실장을 역임한 도명 스님을 위촉한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를 전해들은 총무원장 경암 스님 등 종단 간부들은 "불입종 승적이 없는 도명 스님을 중정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경암 스님측은 7월 21일 부산 보명사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2대 중정 경조 스님이 자기 중정 위촉 즉시 중정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 총무원장 경암 스님을 중정권한대행으로 추대했다.

또한 경암 스님측은 8월 16일 충북 제천 총무원에서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해 중회의원 재적 28명 중 23명의 동의를 얻어 제3대 중정으로 부산 금강암 조실 면철 스님을 추대했다.

경암 스님 측의 조치에 대해 중정 경조 스님은 "불입종에 입문한지 5년도 채 안 되는 면철 스님이야말로 중정 부적격자이며 현 중정이 버젓이 살아 있는 데도 중정중임을 임의로 해석해 중정 자격을 박탈하고 종단의 내용을 일으킨 것은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무원장과 그 측근 간부들에게 8월 11일부로 모두 해임시킨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 전국선원수좌회 '종법기구' 추진

하안거 선원위원회에서 검토, 내년에 확정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혜국·현주·현산)는 8월 13일 수덕사에서 '불기 2550년 병술년 하안거 전국선원선원위원회'를 열고 선원법 개정을 통해 전국선원수좌회를 종법기구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능인선원 선원장 설정 스님의 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선원위원회에서 선원대표들은 올해 동안가 안거 동안 제방 선원의 여론을 모아 차기(2007년 2월) 선원에서 최종 확정키로 뜻을 같이 했다.

선원위원회의는 또 교육원이 추진하고 있는 '간화선 지도자'의 명칭을 '선(禪)포교사'로 변경할 것을 결의했다.

최근 포교원이 간화선을 지도하는 재가자에 대해 '간화선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 명칭이 선원의 '명안종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포교사'로 변경 하도록 했다. 이 날 회의에는 설정, 동준, 정천, 의정, 환주, 혜국 스님 등 27명이 참석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공원입장료 기획예산처만 '반대' 입장

환경부에 공문 '국민부담가중' 이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기획예산처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부 폐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조계종 등 불교계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환경부로 보낸 기획예산처 공문에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없앤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군립 공원과 궁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되면서 국민부담을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이처럼 강경한데 반해, 이미 환경부는 입장료 폐지에 따른 내년 예산 300억원 증액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국회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나 불교계,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도 한목소리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 불기 2550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헌종법 교육원법 제2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종도수련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0년 9월 1일 - 9월 3일(음 윤 7월 9일 - 11일)
- ◆ 입 재 : 불기 2550년 9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단, 당일 오후 2시까지 입소등록 완료요망)
- ◆ 준 비 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세면도구
-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 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승리 392-10)
- ◆ 접수 및 안내 :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2) 951-1074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51) 638-4088  
총무부장 010-3136-4115
-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대한불교대승종 각지방총무원  
대한불교대승종 중앙총의회 · 대한불교대승종 전국신도회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진 도일 합장**

### 대한불교대승종 종단수륙제 및 방생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조국 대한민국의 국운 융성과 경제 발전을 발원하고 모든 국민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안락하고 보리심을 발하기 위하여 전국 대승종 종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 단체 수륙제 및 방생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금차 수륙방생은 모든 불성 생명을 존중하고 전생의 악업으로 이류중생의 몸을 받았거나 아직 택처를 찾지 못해 구원을 떠도는 고혼 애혼 영가를 천도함으로써 자라가 돌 아닌 동체 대비심을 고취하며 생명존중사상을 법양코자 함이오니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와 각 사암 주지스님들께서는 무무 동참하시어 법좌를 빛내주시옵고 이차 인연 공덕으로 이나라 이땅이 불국토를 이룩하여 일체중생이 이고득락하고 수명장수하며 가문이 창성하고 뜻하는바 모든 사업 크게 이루어 부처님의 크신 은덕 보답코자 함에 그 뜻이 있사오니 전 종도들은 부디 함께 하옵소서.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0년 10월 29일 일요일(음 9월 8일) 10시 30분
- ◆ 장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산34번지 뿌리공원 042) 581-4445
- ◆ 접수 및 안내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51) 638-4088  
총무부장 031) 763-4115
- ◆ 주 최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중앙총의회 · 각지방총무원 · 전국신도회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천 청화 합장**